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4년 거래 실적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면 저축액 30%까지 돌려드립니다.
◆연 4%의 수익률로 저축액이 30%까지 늘어납니다.
080-0273-0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형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3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조계종이 오는 11월 1일부터 정기 예산총회를 갖는 것을 비롯해 각 종단마다 내년 예산편성이 한창이다. 국회도 내년 나라살림을 살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이라는 기본요건이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산을 규모 있고 효율의 극대화를 기해 짜지만 해도 한해 살림을 잘 살 수 있다고 내다봐도 좋겠다. 이를 위해 부처님과 조사들이 제시한 재물 다루는 법부터 새겨본다. (관집자 주)

만일 노력하여 재산을 얻 무리 많이 정만해도 죽은 다음엔 항상 넋으로 나누어야 을 가져갈 것은 지은 업뿐일 한다. 첫째 4분의 1은 의식주 를 위하여, 둘째 4분의 2는 그것을 자본으로 이익을 얻으며,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하여 액 운을 대비해야 한다. (선생지경)

먼저 해야 할 일...
어려운 사람은 재물로 재물을 묶어 파안으로 건너갈 생각을 않는다. 재물과 애욕이 풀들 어 남을 해치고 또 자신을 멸한다. (법구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지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종이합경)

주어서는 안 될 사 람에게 재산을 주고, 주 어야 할 사람에게 주지않는 다면 불행해지고, 재년에 빠져도 자기를 도와줄 친구가 없다. 주어야 할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주어서는 안될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불 영을 만나거나 재년에 빠져 도 도와줄 친구가 있는 법이 다. (본생경)

올 때도 한 물건없이 왔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나이 재물에도 연연할 것 없 거를 다른 이의 재물에 마음 을 둘까 보나, 살아 생전 아

조계종 97년 예산 불교회관등 편중 포교·교육 '위축우려'

50억규모 신규 사업계획 차기 증회서 논란일 듯

조계종이 특별한 세입증거 없이 내년부터 불교회관건립, 승려복지제도시행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본격추진하면서 단체지원금과 사업, 행사비를 대폭 삭감할것으로 보여 종단 지원 비중이 큰 포교와 교육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보인다.

사찰부동산처분 전입금(10억 원), 약간의 중앙분담금 증가 등 약 5~30억원이 상승할것으로 예상되고있어 중점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는 약 20억원가 량을 기존의 예산에서 확보해 야할 상황이다. 이것은 1억원

규모의 사업 20여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것으로 지원과 행사진행을 주업무로 하고있는 포교원과 교육원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을 주관하고있는 기획실 관계자는 "새로 마련한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면 증우 행정에 어려움이 없을것이다" 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말까지 편성된 내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은 11월1일 개최되는 제 123회 중앙총회에서 포교와 교육의 예산 삭감에 따른 지적이 있을것으로 보여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이준엽 기자>



'21세기 불교의 길' 지난 24일 동국대 개교 90주년 기념 '21세기 불교의 길'을 주제로한 초대형 국제학술회의가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참석, 미래신학의 좌표를 제시하는 실용적인 학술회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해인골프장 사업취소 마땅"

서울대 교수 3백명 서명 청와대등 제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자연환경의 심각한 파괴는 문화국민으로서 부끄러울 일이다. 이 귀중한 문화재는 어느 특정 기업, 지역과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과 후손의 자산이다. 서울대교수 3백명이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을 했다. 권순국(농공대) 호문력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팔만 대장경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 장경보존은 특정지역 또는 종교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 강조했다.

"굶주리는 北동포 방관말자"

월주님 시국성명...무장공비 침투 사과 요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님은 지난 22일 총무원에서 최근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간첩침투 등 일련의 시국사태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해와 냉해로 굶주리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과 관



◇인터넷 1차교육이 열기속에 진행되고 있다.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실시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신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신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현재 2차~5차 접수중)

- ◇교육대상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서울지역 90명, 부산·광주 각 30명) 1회당 30명씩 배정.
- ◇교육 장소 : 상보컴퓨터 교육센터
- 서울 : 구로구 신도림동 338 남부대일학원 2층 (신도림 정철역)
- 부산 : 동구 초량3동 1163-2 부산상보컴퓨터 사옥 2층
- 광주 :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 문의 : 본사 전학정보팀 (02)737-8881
- ※ 협찬 : 상보컴퓨터

◇교육 내용 및 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 정				
		1차(서울)	2차(서울)	3차(서울)	4차(부산)	5차(광주)
windows 기본	10:00~17:00	11.18(수)	11.25(수)	12.14(수)	11.9(수)	11.29(일)
인터넷 기본	*	11.20(일)	11.4(월)	12.19(일)	11.10(일)	11.28(일)
인터넷 중급	*	11.11(일)	11.18(일)	12.19(일)	11.11(월)	11.25(일)
인터넷 고급	*	11.30(일)	12.7(월)	12.17(화)	11.12(화)	11.29(화)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낼시다



◇자은스님 ◇백산스님 ◇성욱스님
동참해주신 분
△자은 하와이 불문사주지(2구좌) △백산 요충사주지: 사천 남양주·삼천포(2구좌) △성욱 옥천사주지: 고성 고성여교 영천중(2구좌) △사해스님: 용남중 용남교(2구좌) △지현스님 5명: 안성여중 안성여교(4구좌) △한마음선원 마신지원 신도회: 마산고 마산공고 마산중앙고 창원문성고 중앙고 창원여고 반남중 마산여고 마산제일고 가포고 창원고 창원상신고 창원경일고(13구좌) <10월 17일 현재 총 513구좌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정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시여문의 마음 읽는 법 / 이시여문은선사자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부처'라는 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적)된 33은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통찰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이시여문은 '좋은 법, 한 가지 버려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시여문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살아가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깨달음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적'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늘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문 342쪽 / 값 7,000원